

정례브리핑

2021.5.10.(월) 10:30, 이종주 대변인(통일부)

안녕하세요? 이번 주 통일부 주요 일정과 신규 사업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마무리되면서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선순환하는 방향에서 한미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러한 필요성에 주목해서 이번 주 목요일, 5월 13일 오전 10시에 통일연구원과 국립외교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등 세계 정책 연구기관이 함께 개최하는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방향과 한미 협력방안 세미나를 후원합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통일부 장관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여러 전문가들이 미 대북정책에 대한 균형된 이해, 대북 조기 관여의 필요성과 이행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현장 취재가 가능하고, 통일연구원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중계됩니다.

다음은 올해 통일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DMZ 평화의 길 통일 걷기' 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통일부는 다음 달 6월부터 11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서 우리 국민이 DMZ 일대를 직접 걸어보고 체험하는 DMZ 평화의 길 통일 걷기 사업을 시작합니다.

우선, 6월과 8월, 9월에는 고성에서 파주까지 12박 13일간 DMZ 일대를 동서로 횡단하는 장기 코스를 3차례 진행합니다. 이어서 7월부터 11월까지의 강화와 김포, 연천 등 접경지역 일대를 3박 4일간 걷는 단기 코스를 7차례 진행합니다.

이 통일 걷기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이 해당하는 구간 안에서 거리 공연이나 평화통일 특강, 탐방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함께 열리게 됩니다. 각 구간을 완주한 참가자들에게는 통일부가 인증서와 메달 등도 수여할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 여정은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기념해서 다음 달 6월 15일에 시작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분들은 금주 중에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누리집에서 참가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5월 13일은 남북통합문화센터가 개관된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2시에 남북통합문화센터 개관 1주년 기념행사를 갖습니다.

남북통합문화센터는 지난 1년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탈북민과 우리 국민 간의 소통을 증진하고 통합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탈북민에 대한 심리상담과 문화생활 지원 등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4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1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올라

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의 성과를 평가하고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상황 등을 감안해서 온라인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체험형 콘텐츠를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관 1주년 기념행사에는 이러한 발전 방향 등을 짚어보는 시간 등이 있고요. 통일부 장관 그리고 태영호, 지성호 등 탈북민 출신 의원, 진성준 지역구 의원 등이 참여하여 함께 축하를 하게 됩니다.

이번 행사도 현장 취재가 가능하고요. 남북통합문화센터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통일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고령, 취약계층 이산가족과 탈북민을 대상으로 하는 위로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먼저, 5월 12일부터 전국 90대 이상 이산가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약 1,500분에게 선물과 위로 메시지들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 중에 서울에 거주하시는 고령 이산가족 분들에 대해서는 통일부 장관이 직접 배송 기사가 돼서 자택까지 선물을 전달하고 안부 메시지 등도 직접 건넬 예정입니다.

또한, 전국 하나센터와 협업해서 지난 4월 26일부터 오늘 5월 10일까지 약 2주 동안 만 65세 이상의 탈북민 약 2,000명에게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는 안부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분들에게는 의료와 복지서비스 지원, 생필품 꾸러미 전달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금주 주요 일정과 사업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인천시 연구용역 대북 거점 공항 방안추진 관련해서 통일부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통일부가 파악하고 있는 입장이나 소개시켜 주십시오.

<답변>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사업의 취지라든지 추진 경과 등에 대해서는 인천시에 확인하실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통일부는 이 사업에 대해 전혀 모르고 계셨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답변> 예,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협의 등이 있었는지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통일부가 원래 지자체의 남북 교류 협력, 지원 이런 것... 교류 협력에 대해서 지원하거나 협력하겠다는 기본적인 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특별하게 평가하실 만한 언급도 없을까요?

<답변> 예, 이 사업은 아직은 용역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천시에서도 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정도의 용역을 진행했다, 이렇게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통일부와 지자체 간의 다양한 협의체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협의될 그런 단계는 아직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북중 국경 동향 관련해서 혹시 추가적으로 통일부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북한에서 방역조치 등 이런 게 좀 바뀌었다고 봐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북중 국경 동향과 관련해서는 통일부도 여러 유관기관과 함께 면밀하게 주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북중 국경의 봉쇄가 완화됐다는 등 상황 변화를 확인할 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경 봉쇄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서는 북중 간의 다양한 협의 요소들이 있을 텐데요. 지금 말씀하신 방역에 관한 여러 조치들도 그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다만, 북중 국경... 북중 국경의 봉쇄 완화 여부 등과 관련해서 북중 간 어떤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드릴만 한 사항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끝>